

농어촌공사 공주시사, '내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 구슬땀

✎ 길상훈 기자 | ㊟ 승인 2022.04.28 10:45



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이 경천양화저수지를 대상으로 '내고향 물살리기운동'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.(사진제공=농촌공사 공주시사)

[충남일보 길상훈 기자]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은 지난 26일 계룡면 경천양화저수지 주변에서 '내고향 물살리기운동'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.

이날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과 노인회 회원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저수지 주변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2톤을 수거하면서 저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.

경천저수지 주변 둘레길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 자랑거리로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.

조성명 공주시사장은 “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농업용수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환경보존 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 모두가 환경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길상훈 기자 kksh123@korea.com

저작권자 ©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